

김문수 지사와 外國人 근로자의 눈물

경기도, 모범외국인근로자 家族초청 행사

9월13일 저녁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게스트하우스는 눈물바다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년만에 만난 가족들과 단체상봉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의 지원 아래 안산시가 준비한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 행사'에서 연방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들은 안산시 내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12개국 13명의 모범 외국

근로자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김지사는 "외국인 이민자의 건강, 가족, 귀환, 결혼이민 등을 돕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말해서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민속촌 등 관광도 즐기면서 짧지만 행복한 가족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어깨를 감쌌다.



13일 안산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모범외국인근로자 초청 행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은 3년 만에 처음 만난 초창가족들과 서로 눈물을 닦아냈다.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페레라씨는 초창한 어머니와 부동켜안고 눈물을 펄펄 흘려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모범 이주근로자들이 차례로 부모처자와 상봉의 눈물을 흘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눈물을 흘리고, 이주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김지사는 국가별 가족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지사는 "먼 나라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외국인 근로자야말로 진정한 자국의 외교관"이라며 "경기도를 여러분의 맘과 보람과 편안함이 있는 고향처럼 생각해 달라"고 근로

자들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김지사는 "외국인 이민자의 건강, 가족, 귀환, 결혼이민 등을 돕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말해서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민속촌 등 관광도 즐기면서 짧지만 행복한 가족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어깨를 감쌌다.

피혁공장 노동자인 미얀마 출신 데인씨는 "이렇게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날 환영만찬을 마친 13가족은 16일까지 3박4일간 한양대가 제공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공단근무현장, 63시티, 한국민속촌 등을 견학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책 읽는 지식문화공간 造成

의정부과학도서관 10월10일 開館

의정부시 생동감을 만끽하고 재미를 느끼며 체험하는 과학도서관 다음달 10일 개관한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공간 조성과 동서지역에 지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과학도서관이 다음달 10일 개관한다.

다음달 10일 개관식에는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기념식이 있으며, 이어서 식후행사로 제막식, 테이프 커팅, 시설행담 등이 있다.

또한 과학 체험프로그램으로 과학 뮤지컬(어드벤처 뉴튼)과 과학우주도서관, 천체 사진전, 별자리 강연, 별자리 보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번에 개관하는 과학도서관은 신곡동 124-1번지에 2004년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하였으며,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열람실과 문헌 디지털자료실, 과학체험실 등 최신 첨단설비로 되어 있다.

또한 과학도서관은 첨단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전시, 놀이문화가 접목된 과학체험의 장으로 기존의 도서관 틀을 깬 지식문화공간의 종합구현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체험실에는 기존의 정적인 전시에서 탈피하여 작동과 체험 중심의 전시품으로 구성하고 3D영상시뮬레이터, 디지털극장 등 첨단 연동매체를 활용한 역동적인 과학교육 실습현장으로 조성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이번에 개관하는 과학도서관은 천문우주체험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북부의 대표 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립하여 교육, 문화, 도시의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공간 조성과 동서지역에 지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과학도서관이 10월10일 개관한다.

6년째 남몰래 사랑의 소독사업

의정부시 가능2동 8통 조정훈 통장

美談

의정부시 가능2동에는 개인용 분무 소독기를 설치하여 매년 여름 관내 주민들에게 방역 소독사업을 펼쳐 오는 통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가능2동 8통 조정훈 통장이다. 조 통장은 2001년부터 매년 의정부 보건소를 찾아가 소독약을 수령, 위생이 취약한 지역과 백석천변, 마을 뒷골목, 인적이 드물면서 수풀이 우거진 곳 등 모기의 유충 서식이 쉬운 곳은 어김없이 찾아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 소독사업을 시작 했을 때는 통장으로서는 관할 통의 소독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은 직접 찾아가 방역소독을 하다보니 매년 해를 거듭할 수록 소독을 요청하는 세대가 많아 이젠 가능2동 전지역을 도맡아 구석구석 소독하고 있다.

25년째 가능2동 한자리에서 자영업업을 하고 있는 조 통장은 통장으로, 지역의 한 주민으로 지역사회의 위해 무엇을 봉사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다 지난 2005년 의정부시 시민자치대학 발맞추기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에는 장애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을 접수 오는 11월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주민들의 대소사에 더 많은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조 통장은 모기 없는 마을, 말라리아 없는 마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찾아가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가능2동에는 개인용 분무 소독기를 설치하여 매년 여름 관내 주민들에게 방역 소독사업을 펼쳐 오는 통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남양주 가운 택지개발지구 시범안전점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안전점검의 날 맞아

제13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9월7일 남양건설(주) 남양주 가운 택지개발지구 3공구현장에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사외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산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재예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도원은 안전점검의 요령을 전파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무상으로 작업중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해예방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제13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은 9월7일 남양건설(주) 남양주 가운 택지개발지구 3공구현장에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노사외의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범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농촌사랑 1사1촌 도·농 교류방문 활성화

의정부시 장암동과 흥천군 광원1리 상생과 화합

의정부시 장암동은 9월8일 자생단체장과 직원 등 25명이 강원도 흥천군 내면 광원1리를 방문, 마을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방문은 지난해 서계문화제를 통해 장암동과 결연을 맺은 광원1리 퇴출농민을 방문, 오대산 자락 산기슭에서 각종 산나물 캐기 현장체험을 비롯, 주민들이 직접 담긴 토종 나물을 맛보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유은희 장암동장은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광원1리와의 1사1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직원들의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장암동은 9월8일 자생단체장과 직원 등 25명이 강원도 흥천군 내면 광원1리를 방문, 마을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경기도 보육인들의 화합 한마당

경기보육인 대회 안성에서 1만여명 참석

경기도는 14일 도내 보육인들의 가장 큰 화합의 한마당인 경기보육인대회(이하 보육인대회)를 안성 국제실내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보육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김문수 도지사, 안태홍 도의회의장, 안성시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 간 보육분야 발전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육시설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122명 대해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 까지 48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 낭독에서 경기보육인들은 ▶사명과 긍지를 갖고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함 ▶밝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

한 자정 노력 ▶선진화된 보육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함 등 경기보육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9월14일 안성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07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랑천 둔치 아름다운 코스모스길

의정부의 젓줄 중랑천 코스모스 시민 유혹

의정부시는 시의 젓줄인 중랑천 둔치에 여름에 파종한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꽃길을 시의 젓줄인 중랑천에 조성해 왔다.

올해에도 6천870㎡에 파종을 해 9월 중순부터 절정을 이룬 10월말까지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잡초나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랑천 둔치에 코스모스를 심기 시작한 것이 이젠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상쾌하고 아름다운 중랑천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파종부터 코스모스가 시들 때까지 전 생육과정을 보며 자라게 하는 좋은 자연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의 젓줄인 중랑천 둔치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 코스모스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는 시의 젓줄인 중랑천 둔치에 여름에 파종한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영어마을 민간위탁안 표결

9월12일 경기도의회 제226회 제4차 임시회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서 찬성하는 의会员들이 기립하고 있다.



의정부시 추석명절 물가안정 총력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과 추석 제수용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원활한 공급 및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26일까지 추석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6 승무(僧舞)

숨명적으로 춤추기 위해 태어난 자의 몸부림이라 표현

승무는 2004년4월30일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승무는 조선 중엽 포교수단으로 승무를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황진이가 지극선사를 유혹하려고 춤 추면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춤사위가 다양하고 춤의 기법이 독특하며 춤의 구성 또한 체계적인 품위와 격조가 높은 예술형식을 지니고 있는 승무는 절에서 추어지는 의식무가 아니라 살풀이와 함께 민속춤으로 분류된다. 장삼에다 어깨에 붉은 가사를 두르고 고깔을 눌러 쓴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승무의 세찬 장삼놀음과 빼어난 울림이 가히 한국 춤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승무는 2004년4월30일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승무는 조선 중엽 포교수단으로 승무를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황진이가 지극선사를 유혹하려고 춤 추면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춤사위가 다양하고 춤의 기법이 독특하며 춤의 구성 또한 체계적인 품위와 격조가 높은 예술형식을 지니고 있는 승무는 절에서 추어지는 의식무가 아니라 살풀이와 함께 민속춤으로 분류된다. 장삼에다 어깨에 붉은 가사를 두르고 고깔을 눌러 쓴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승무의 세찬 장삼놀음과 빼어난 울림이 가히 한국 춤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대선 출생으로 1974년 불가에 입문한 승재씨는 조계종 스님으

로부터 작법과 범패를 배우기 시작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유자인 박승안 스님에게서 바라춤, 범고무 등 불교의식과 의식무를 사사 받았다. 이후 이매방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영산재보존회로부터 영산재를 각 각 이수 받았다.

승재씨의 춤은 매우 여성적이나 약하지 않고, 섬세하나 큰 결이 있으며, 결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함이 깃들여 있다. 발끝에서 손끝까지 잔잔한 생생함이 있는 움직임이 표출되는 춤사위를 통해 한과 속명을 풀어내고 있다. 그 몸짓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감정으로 내면에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